

투·타 휘청 2-11 대패... 개막부터 초대형 예방주사



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2020 KBO리그 개막전이 열렸다. 3회초 1사 1·2루에서 1루에 있던 키움 주자 김하성이 이정후의 2루타 때 홈에 들어오고 있다. 아래 사진은 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 때문에 경기가 잠시 중단된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KIA - 키움히어로즈 개막전

KIA 선발 양현종, 3이닝 4실점 초반 난조 극복 못하고 조기 강판 김현준-고영창-홍건희 투입에도 키움 불방망이 막기엔 역부족 집중력 잃은 타선, 산발 안타 투·타 총체적 난국 드러내

기다렸던 '호랑이 군단'의 2020시즌 첫 경기가 졸전으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에서 2-11 대패를 당했다. 지난해에 이어 개막전 선발로 나선 에이스 양현종이 초반 난조로 3회를 끝으로 4실점을 남기고 일찍 물러

났고, 타선은 산발 6안타로 2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양현종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다. 1회 선두타자 서건창을 2루수 땅볼로 돌려세운 양현종은 김하성을 포수 파울플레이로 처리했다. 이정후를 유격수 땅볼로 잡는 등 11개의 공으로 1회를 마무리했다. 2회 첫타자 박병호도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지만 이택근에게 2루타를 허용했다. 양현종은 이정후에게 풀카운트 승부 끝에 중전안타를 맞고 선취점을 내줬다. 양현종은 이어진 모터의 타석 때 10구를 던져 간신히 헛스윙 삼진을 만드는 등 2회에만 33개의 공을 던졌다. 3회 선두타자 박준태와의 승부가 아쉬웠다. 양현종은 투스트라이크의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볼넷을 허용했다. 서건창의 땅볼 때 선행 주자가 아웃되면서 1사 2루. 하지만 김하성에게 다시 볼넷을 내준 양현종은 이정후의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로 2실점을 했다. 이택근에게 다시 안타를 맞으면서 추가 실점했다.

양현종은 3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나면서 시즌 첫 등판에서 3이닝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4실점의 아쉬운 성적표를 작성했다. KIA는 양현종 이후 김현준-고영창-홍건희를 마운드에 투입했지만 키움의 방망이를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8회 김하성과 박병호에게 연달아 홈런을 내주는 등 장단 12안타로 11실점을 했다. 타자들이 초반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1회말 1사에서 김선빈이 볼넷을 골라냈지만 터커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이닝이 종료됐다. 최형우와 장영석의 연속 안타가 나온 2회 무사 1·2루에서는 유민상, 나지완, 한승택이 침묵했다. 6회 김선빈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한 뒤, 터커의 볼넷까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장영석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KIA는 상대의 2루수 실책과 볼넷으로 맞은 9회 무사 1·2루에서 유민상의 안타에 이은 최정민의 내야 땅볼로 영봉패는 면했다. 2사 1·3루에서 황윤호의 적시타로 1점을 보낸 KIA는 시즌 첫 경기를 2-



11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연기 탓에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KIA의 공격이 진행되던 4회말, 연기가 경기장을

뒤덮으면서 오후 3시 26분 선수단이 그라운드에서 철수했다. 그리고 오후 3시 45분에 경기가 재개되면서 19분간 경기가 중단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윌리엄스 감독, 잘못 끼운 '첫 단추'

터커·최형우 좌투수 공략·양현종 기선제압 카드 빗나가

오늘 브룩스 선발 첫 승 기대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의 KBO 데뷔전 첫 승 구상이 '선발'에서 흐트러졌다. 타이거즈 역대 첫 외국인 사령탑인 윌리엄스 감독은 5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KBO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가을 마무리캠프에서부터 2020시즌 구상을 해왔던 윌리엄스 감독은 첫 승 전략으로 '선발'에 주목했다. 일단 에이스 양현종이 나서는 만큼 상대 브리검을 먼저 공략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윌리엄스 감독은 최원준-김선빈을 '데이블 세트'로 두고 터커-최형우-장영석으로 '클린업트리오'를 구성했다. 그리고 나지완은 7번으로 내려 뒀 타선에도 무게를 실었다. 경기 전 윌리엄스 감독은 "브리검이 스프링캠프를 다 소화하지 못했고, 피칭 개수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터커, 최형우도 왼손에 강했고 일찍 볼넷을 끌어내리기 위한 라인업이다"고 설명했다. 브리검이 캠프 후 자가격리 기간을 갖는 등 완벽하게 시즌을 준비하지 못했던 만큼 선발로 기싸움을 한 뒤, 좌완 볼넷진을 공략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양현종이 일찍 흔들렸다. 2회 33개의 공을 던지며 진압을 즐긴 양현종은 3

회에 볼넷 두 개를 허용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3이닝 4실점으로 등판을 일찍 끝냈다. 브리검도 4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경기 외 변수가 있었다. 경기장 외부의 화재로 인한 연기 탓에 브리검이 공을 던지던 4회말 1사 1루에서 경기가 중단됐다. 19분이나 경기가 멈추면서 키움은 4-0의 리드 상황에서 브리검을 양현종으로 교체했다. 예상보다는 빨리 브리검이 물러났지만 초반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이렇다 할 공세도 하지 못했고, 윌리엄스 감독은 KBO 데뷔전에서 2-11의 대패를 기록했다. 개막전 첫 승 계산이 어긋난 윌리엄스 감독은 6일 애런 브룩스를 내세워 KBO 첫 승 도전에 나선다. 윌리엄스 감독은 "100구 이상을 던질 준비들이 돼있다. 가능한 캠프 준비를 늦게 시작하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볼넷 피칭을 통해 몸상태를 끌어올린 다음 (4번째 선발로) 던지게 할 생각"이라며 브룩스와 이민우를 키움과 3연전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캠프에서부터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줬던 브룩스와 이민우를 나란히 투입하게 된 윌리엄스 감독이 개막전 대패를 지우고 위닝 시리즈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G 김현수 첫 홈런·한화 서폴드 첫 승

2020 시즌 1호 주인공 속속 탄생... 첫 비디오 판독 삼성-NC전

LG 캡틴 김현수가 KBO 2020시즌 첫 홈런 주인공이 됐다. KBO는 5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전을 갖고 2020시즌 대장정을 시작했다. 새로 시작된 시즌, 1호 주인공도 속속 탄생했다. 올 시즌 가장 먼저 담장을 넘긴 이는 LG 김현수였다. 김현수는 1-0으로 앞선 2사 2루에서 두산 알칸타라의 153km 직구를 밀어서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2020시즌 홈런 레이스를 알리는 한방이었다. 이날 개막전에서는 10개의 홈런이 쏟아졌다. 한화 2번 타자 정은원은 1회초 SK 김영을 상대

로 우측 2루타를 만들면서, 2020시즌 1호 안타와 2루타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첫 피안타 주인공이 된 김영은 2회에는 선두타자 송광민에게 2루타를 맞은 뒤, 김태군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면서 첫 득점과 첫 타점 기록도 내주었다. 하지만 김영은 1회초 이성열을 상대로 2020시즌 첫 탈삼진도 수확했다. 선수들의 지원 사격을 받은 한화 선발 서폴드는 올 시즌 가장 먼저 승리를 신고했다. 특히 9이닝을 2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시즌 1호 완봉승까지 장식했다. KIA에서는 1호 병살타라는 씁쓸러운 기록이 만

들어졌다. 키움과의 1회초 1사 1루에서 3번 타자 터커의 타구가 2루수 앞으로 향했고, 4-6-3의 병살타가 기록됐다. 롯데 3루수 한동희는 개막전에서 가장 먼저 실책을 냈다. 이외에 시즌 첫 도루는 LG 김용의, 4구는 두산 박건우, 몸에 맞는 볼은 LG 채은성, 첫 희생플라이는 한화 정진호가 기록했다. 첫 비디오 판독은 삼성과 NC의 경기가 열린 대구에서 이뤄졌다. 4회초 1사에서 나성범이 백정현의 초구를 받아 오른쪽으로 넘겼다. 이때 삼성이 시즌 첫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결과 그대로 홈런이 인정되면서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나성범이 거포의 복귀를 알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팝' 다음은 'K베이스볼'

야구 중주국 미국·일본에 중계권 역수출...매일 생중계 확정

5일 개막한 2020 KBO리그가 미국 ESPN과 일본 SPOZONE 등을 통해 해외에 생중계된다. KBO는 지난 4일 "미국 ESPN과 일본 SPOZONE을 통한 생중계 서비스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스포츠 전문 방송사인 ESPN은 5일 삼성과 NC의 경기를 첫 중계했다. ESPN은 이 경기를 시작으로 매일 KBO 리그 1경기를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한다. KBO 관련 뉴스 및 하이라이트 프로그램도 서비스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방송 시간이 미국 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새벽)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알람 맞춰놓고 볼 것 같다"며 웃었다. 일본 유무선 플랫폼 SPOZONE도 개막전부터 매일 2경기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SPOZONE은 앞으로 서비스 경기 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SK와 한화의 공식 개막전에는 AP통신, 로이터통신, 알자지라 등 11개 외신이 찾아 전 세계에 KBO 개막 소식을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